

# 중국의 “조선말맞춤법”과 한국어교육

박갑수\*

## 1. 서언

어떤 사실을 규정하는 법은 한 가지만이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법이 있게 되면 그것은 법의 구실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란을 가중하게 된다.

맞춤법, 綴字法, 또는 正書法(orthography)이라 하는 것은 글자를 일정한 규칙에 맞도록 쓰게 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도 법 가운데 하나이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한국어의 “맞춤법”은 몇 가지가 있다. 남쪽의 “한글맞춤법”, 북쪽의 “맞춤법”, 중국 東北 三省의 “조선말맞춤법”이 그것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표기법은 세 가지로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혼란은 광의의 한국어의 문자생활에 균열이 생기게 하고 혼란을 부채질한다. 민족어의 생활에 혼란을 빚고, 특히 교수·학습 생활과 관련될 때 문제를 야기한다. 이들 규범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문제되기

---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때문이다. 이는 특히 제3국에서 교육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곤란한 문제에 부딪치게 한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어떤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안다. 이는 수요와 관련되는 문제로 학습자가 그것을 중국, 한국, 조선의 어디에서 사용할 것이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언어 규범이 다양하면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맞춤법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의 “조선말맞춤법”은 북쪽의 “맞춤법”의 복사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같다. 그러나 이들과 남쪽의 “한글맞춤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족어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맞춤법의 같고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사전에 혼란을 막고 바람직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중국의 “조선말맞춤법”과 남쪽의 “한글맞춤법”을 중심으로 그 異同을 비교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중국의 “조선말 맞춤법”에 따라 남쪽의 “한글맞춤법”을 비교 대조하고, 그 다음 “조선말맞춤법”에 규정되지 않은, “한글맞춤법”의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쪽의 “맞춤법”은 그때그때 아울러 검토될 것이다. 이러한 맞춤법을 고찰한 뒤에는 바람직한 한국어교육, 곧 민족어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2. 세 나라의 “맞춤법” 규정의 비교

### 2.1. “조선말맞춤법”의 규정

중국의 “조선말맞춤법”은 동북 3성 조선어문사업 실무회의에서 토론

채택된 것이다. 이의 검토 자료는 동북 3성 조선어문사업협의회소조 판공실에서 1984년 편한 “조선말규범집”으로 하기로 한다. “한글맞춤법”은 국어연구소에서 1989년 펴낸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규정 해설”을 바탕으로 하고, 북쪽의 “맞춤법”은 198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에서 편한 “조선말규범집”의 것을 자료로 하기로 한다. “조선말맞춤법”과 “맞춤법”은 다 같이 총칙과 7장, 26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글맞춤법”은 6장,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7항으로 되어 있다. “조선말맞춤법”과 “한글맞춤법”의 비교·대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말맞춤법”의 차례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은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맞춤법의 검토이며, 중국의 맞춤법을 모르는 한국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세 가지로 다른 우리말 맞춤법은 조선어학회(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母胎로 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따라서 기본 원리가 같고, 세부 항목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맞춤법은 다른 언어 영역과는 달리 분단에 의한 이질화가 덜 되어 다행스런 영역이다.

“조선말맞춤법”은 총칙에서 다음과 같이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진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형태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조선말맞춤법”은 이렇게 표기법의 기본을 形態主義에 두었다. 이에 대해 북쪽의 “맞춤법”은 형태주의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表音主義的 표기를 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

남쪽의 “한글맞춤법”은 총칙 제1항에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표음적 표기를 하면서 형태주의적 표기를 원칙으로 한 절충적 방법을 택하였다. 이 점에서 남북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같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표현의 순서가 다를 뿐이다.

#### 제1장 자모의 차례와 이름

제1항에서는 자모의 차례와 이름을 규정하고 있다. 자모의 수는 40개로 “한글맞춤법”과 같고, 그 이름과 순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글맞춤법” 제4항의 이름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ㄱ(기옥) ㄴ(디은) ㄷ(시웃)// 기역 디근 시웃  
ㄱ(된기옥) ㄴ(된디은) ㄷ(된비읍) ㅅ(된시웃) ㅆ(된지은)// 쌍기역 쌍디근 쌍비읍 쌍시웃 쌍지웃

기호(//) 앞의 이름이 “조선말맞춤법”의 것이고, 뒤의 이름이 “한글맞춤법”의 것이다. “조선말맞춤법”에서는 자음 이름의 둘째 음절 모음을 “으”로 통일하고 있고, “한글맞춤법”은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이름을 이어받고 있다. 또한 “조선말맞춤법”에서는 “그느드르모브...”라 부를 수도 있게 규정해 놓았다. 이러한 이름은 “한글맞춤법”에는 없는 것이다. 모음의 이름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모의 차례는 차이를 보인다. 자음의 경우는 “조선말맞춤법”의 경우

된소리를 모두 예사소리(平音) 뒤에 몰아 놓고 있다. “한글맞춤법”에서는 기본이 되는 글자를 먼저 제시하고, 된소리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전체를 순서라고 볼 때 차례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에 보이듯 사전에 올리는 순서와는 다른 것이다.

모음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조선말맞춤법”에서는 기본이 되는 글자 다음에, 자모를 어우르는 경우 뒤에 이어지는 모음에 따라 차례를 배열하였는데, “한글맞춤법”에서는 오히려 앞에 오는 모음에 따라 차례를 배열하여 차이를 보인다.

조선말맞춤법: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ㅈ, ㅊ, ㅋ, ㆁ, ㄷ, ㅌ, ㄴ, ㄹ,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한글맞춤법: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ㅈ, ㅊ, ㅋ, ㆁ, ㄷ, ㅌ, ㄴ, ㄹ,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북쪽의 자모의 차례와 이름은 “맞춤법” 제1항에 “조선말맞춤법”과 같이 규정해 놓았다.

사전에 올리는 자모의 순서도 같지 아니하다.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에서 편찬한 “조선말사전”에는 올림말의 배열 순서를 “이 사전의 모든 올림말은 조선어 자모순에 따라 배열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자모순을 따르되 “ㅇ”의 경우 받침은 자모순을 따랐으나, 초성의 경우는 “ㅇ”을 음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맨 끝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글맞춤법”은 제4항에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자음의 경우 앞의 순서와 달리 배열하고 있다. 모음의 배열 순서는 위에 제시한 바와 같다.

중국 사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ㅌ, ㅍ, ㅎ,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ㅇ  
 한국 사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ㅌ, ㅍ, ㅎ

이렇게 두 나라의 사전 배열 순서는 다르다. 북쪽 사전의 배열 순서는 중국과 같다.

### 제2장 한 형태부의 적기

제2항은 받침을 27개로 규정하고 명시한 것이다. 북쪽의 “조선말맞춤법” 제2항도 마찬가지다. 남쪽의 “한글맞춤법”은 받침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원칙은 같다. 다만 “한글맞춤법”에서는 “ㄷ”을 “ㄷ”에 통합하였다.

제3항은 받침 “ㄷ, ㅌ, ㅂ, ㅃ, ㅈ, ㅊ” 가운데 어느 하나로 밝혀 적을 수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고 한 것이다. 북쪽의 “맞춤법” 제3항도 마찬가지다. 이는 “한글맞춤법”의 제7항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을 ‘ㅅ’으로 적기로 한 것과 같은 것이다.(아래의 보기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조선말맞춤법”의 것이다)

“뭇별, 핫웃, 헛소문, 무룻, 얼핏, 싱긱싱긱, 빗나가다”

제4항 한 형태부 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설측음은 “ㄹㄹ”로 적고, 기타 자음은 받침으로 적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한글맞춤법통일안”에 있던 것이다. 이를 “맞춤법”에서는 제4항과 제5항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한글맞춤법”에서는 이를 필요 없다고 보아 삭제하였다. 표기 원리 면에서는 “한글맞춤법”도 “조선말맞춤법”과 같다. “조선말맞춤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설측음인 경우

“걸레, 벌레, 진달래, 빨래, 얼른”

2) 설측음 이외의 자음인 경우:

- ① 겨누다(견우다), 디디다(딛이다) ② (길을)비키다(빅히다), 소쿠리(속후리) ③ (노을이)비끼다(빗기다), 어깨(엇개), 이따금(잇다금)

제5항은 한 형태부 안에서 받침 “ㄴ, ㄹ, ㅁ, ㅇ” 다음 소리가 된소리가 나는 경우엔 된소리(硬音)로 적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순한소리(平音)로 적기로 한 것이다. “한글맞춤법” 제5항 및 “맞춤법” 제6항도 마찬가지다.

1) 받침 “ㄴ, ㄹ, ㅁ, ㅇ” 다음 된소리가 나는 경우

“말씀, 벌써, 훨씬, 활짝, 움짱달짝”

다만 토(語尾)의 경우는 된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ㄹ가, -ㄹ수록, -ㄹ지라도)

“-ㄹ가”는 “한글맞춤법”의 “-ㄹ까”와 다르다. “한글맞춤법” 제53항에서는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기로 하였다.

2) “ㄴ, ㄹ, ㅁ, ㅇ” 이외의 경우

“가락지, 막대기, 적삼, 접시, 덩석, 몹시, 깎두기, 왁작(- 떠든다)”

제6항 형태부의 소리가 준 경우 준 음절의 첫소리를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 “한글맞춤법” 제32항, “맞춤법” 제7항도 같다.

“갓고(가지고), 딛고(디디고), 밋고(미치고), 엇그저께(어제그저께), 엇저녁(어제저녁)”

제3장 어간과 토의 적기

제7항 어간과 토가 어울릴 적에 그 원 형태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물론 형태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손이, 손을, 손에/ 꽃이, 꽃을, 꽃에/ 먹다, 먹으니, 먹어, 먹지/ 읊다, 읊으니, 읊어, 읊지”

그러나 어간과 토의 결합으로 보기 어렵거나, 결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뜻이 달라진 것은 그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다.

- ① 나타나다(날아나다), 바라보다(발아보다), 부러지다(불어지다), 자빠지다(잡바지다)
- ② (산-) 너머(넘어), (정체가) 드러나다(들어나다), (나무가) 쓰러지다(쓸어지다)

“한글맞춤법” 제14, 15항의 규정과 같은 것이다. “한글맞춤법” 제15항에 서는 본뜻에서 멀어진 것이라 하여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를 들고 있다. 또한 같은 제15항에서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오”,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고도 규정해 놓았다. 이러한 원리는 북쪽의 “맞춤법”에도 제8, 9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8항은 不規則活用을 규정한 것으로, 끝소리가 일정하게 바뀌는 소리는 바뀐 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 1) ㄹ불규칙활용
- 2) ㅅ불규칙활용



- 3) ㅎ불규칙활용
- 4) ㄷ불규칙활용
- 5) ㄴ불규칙활용
- 6) ㄹ불규칙활용
- 7) ㄷㄹ불규칙활용

“한글맞춤법”에는 제18항에 불규칙활용이 규정되어 있다. “한글맞춤법”에는 “ㄷ/ㅡ 불규칙활용, ㅎ 불규칙활용”이 추가되어 있다. “조선말맞춤법”에서는 “ㄷ/ㅡ 불규칙활용”을 준말로 본 것이다. “ㅎ 불규칙활용”은 “조선말맞춤법” 제9항에서 어간 “하-” 아래 어미를 “-여/였”으로 적기로 하였기 때문에 “ㅎ 불규칙활용”이 성립될 수 없어 빠진 것이다. 북쪽의 “맞춤법”은 제18항에 불규칙활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ㄷ/ㅡ” 불규칙 활용을 인정하고 있다. “ㅎ 불규칙활용”은 “조선말맞춤법”과 마찬가지로 “맞춤법” 제11항에서 어미를 “-어/-었” 아닌 “-여/-였”으로 적기로 해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제9항은 어간이 “아, 어, 여” 또는 “았, 었, 였”과 어울릴 적에 어간 모음의 성질에 따라 각각 구분해 적기로 한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 적게 된다.

- 1) 어간 모음이 “ㅏ, ㅑ, ㅓ, ㅕ, ㅗ, ㅛ”인 경우 “아, 았”으로 적는다.  
 “받다- 받아 받았다, 앓다- 앓아 앓았다”  
 \* 어간 모음이 “ㅏ, ㅑ”이더라도 합성어인 경우는 “어, 었”으로 적는다.  
 “나쁘다-나떠, 나뻘다”
- 2) 어간 모음이 “ㅜ, ㅠ, ㅜ, ㅡ, ㅛ, ㅠ, ㅡ, ㅡ, ㅡ”인 경우 “어, 었”으로 적는다.  
 “벗다- 벗어 벗었다, 겪다- 겪어 겪었다, 부르다- 불러 불렀다, 흐르다- 흘러, 흘렀다, 치르다-치러, 치렀다”

3) 어간의 모음이 “ㅣ, ㅐ, ㅑ, ㅓ, ㅕ, ㅗ”인 경우와 어간이 “하”인 경우 “여, 였”으로 적는다. (“한글맞춤법”과 표기가 다른 것은 괄호를 쳐 표시한다.)  
 “기다-(기어 기였다), 매다-(매여 매였다), 되다-(되여 되였다), 하다-하  
 여 하였다”

다만 이 때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여, 였” 아닌, “어, 였”으로 적는다.  
 “밀다-밀어 밀었다, 심다-심어 심었다, 맺다-맺어, 맺었다”

\* 부사로 된 다음 단어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구태여), (도리어), (드디어)”

1) 2)는 “한글맞춤법” 제16항의 규정과 같다. 다만 3)은 어간이 “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는 “한글맞춤법”에서는 “여/였” 아닌, “어/였”으로 적어 차이가 난다. 부사의 경우도 “어”로 적어 차이를 보인다, 북쪽의 “맞춤법” 제11항은 “조선말맞춤법”과 같다.

제10항은 준말(略語)을 규정한 것으로, 준 것은 준 대로 적을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 ① 뜨다-뜨이다-띄다, (뜨이여-띄여, 뜨이였다-띄였다)
- ② 모이다-뫼다, (모이어서-뫼여서)-모여서, (모이여야-뫼여야)-모여야,  
 (모이였다-뫼였다)-모였다
- ③ 보다-보아-봌, 보았다-봌다
- ④ 주다-주어-줌, 주었다-줌다
- ⑤ 바치다-(바치여)-바쳐, (바치여서)-바쳐서, (바치였다)-바쳤다
- ⑥ 하다-하여서-해서, 하여도-해도, 하였지-했지, 하였다-했다
- ⑦ 깨다-(개여서)-개서, (개여야)-개야, (개였다)-꺾다

이들은 “한글맞춤법” 제34, 35, 36, 37, 38항의 규정된 것이나, 許容 아닌 原則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보기 가운데 괄호 안의 표기

는 “조선말맞춤법” 제9항 3)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한글맞춤법”의 표기와 다르다.

다음 단어들은 준 대로만 적기로 하여 “한글맞춤법”과 같다. ②는 “한글맞춤법”에서 “으” 불규칙활용으로 보는 것이다.

- ① 지다(치다, 찌다)-져, 졌다
- ② 가쁘다(모오다, 기쁘다, 슬프다, 치르다)-가빠, 가뻘다
- ③ 사다(자다, 서다, 가다, 켜다, 짜다, 펴다)-사, 샀다

북쪽의 “맞춤법”은 제12항에서 준말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선말맞춤법”의 허용 기준이 “줄어든 것은 준대로 적는다”고 원칙으로 하여 “한글맞춤법”과 원리가 같다.

제11항 어간과 토가 녹아 붙어 소리가 준 경우 준대로 적을 수 있다. 이는 “한글맞춤법” 제33항과 같은 것이다. 다만 표현은 허용과 원칙으로 차이가 있다. 북쪽의 “맞춤법”에는 이 규정이 빠져 있다. (괄호 안의 표기는 한글맞춤법과 다르다)

“나는-난, 자네는-자넌, 그것이-그게, 그것으로-그걸로, (무엇이요)-뭐요”

제12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ㄱ”이 줄고 뒤에 오는 소리가 거센소리(激音)로 날 때 거센소리로 적는다. 이는 “한글맞춤법” 제40항, “맞춤법” 제13항과 같은 것이다.

“다정하다-다정타, 발명하게-발명께, 시원하지-시원치”

그러나 “아니하다-않다, 앉고, 앉지”와 같이 예외를 인정하여 “ㅎ”을 받

침으로 올려 적게도 하였다. 이러한 단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저러하다-저렇다, 자그마하다-자그맣다, 어떠하다-어떻다, 혼하다-(흙  
다)”

“한글맞춤법” 제40항에도 예외 규정을 두어 원리가 같다. 다만 “한글맞춤법”에서는 “혼하다”의 경우 “혼타”로 줄어드는 것을 인정하여 차이를 보인다.

이 밖에 “한글맞춤법” 제40항에서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때 준대로 적도록 규정한 것은 “조선말맞춤법”이나, “맞춤법”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거북하지-거북지, 생각하건대-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해-생각다 못해, 깨끗하지 않다-깨끗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넉넉지 않다, 못하지 않다-못지 않다, 섭섭하지 않다-섭섭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익숙지 않다”

다만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 사전(연변인민출판사, 1992)”이나,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에서 “생각다, 깨끗다, 못잖다” 등을 표제어로 올려놓고 있어 어간 끝음절 “하”가 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글맞춤법” 제40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사도 소리대로 적기로 하였다.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아무튼,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이들도 규정은 따로 없으나, 위의 두 사전에서 다 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제4장 合成語의 적기

제13항 합성어는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한글맞춤법” 제27항, “맞춤법” 제14항의 원칙과 같다.

- ① 건잡다, 낫보다, 닳줄, 집안, 풀았다, 옮길다
- ② 값있다, 길늬다, 설날, 젓어미, 팔알, 끝마치다

그러나 어근(語源)이 분명치 않은 것은 밝혀 적지 않기로 하였다.

“며칠, 부라부라, 이틀, 이태”

“한글맞춤법”은 제27항 [붙임 2]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골병, 골탕, 꿀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등이 예로 들려져 있다. 이 밖에 “한글맞춤법”의 [붙임 3]에서는 “이(齒, 虱)”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 “니”로 적기로 하였다. 이는 “조선말맞춤법”이나, “맞춤법”에 없는 규정이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젓니, 톱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제14항은 합성어를 이룰 때에 어근 사이에서 “ㄴ”소리와 “ㅎ”소리가 덧

날 때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한 것이다. “한글맞춤법” 제31항, “맞춤법” 제15항의 규정도 같은 것이다. 아래의 보기에서 // 뒤는 “한글맞춤법”에 들어 놓은 보기다. (이하 같다)

- ① 멍쌀, 좁쌀, 찹쌀, 부릅뜨다, 몹쓸놈, 휩쓸다// 덩싸리, 범씨, 입때, 입쌀, 접때, (햅쌀)
- ② 머리카락, 안팎, 회파람, 수필, 마파람// 살코기, 수캐, 수컷, 수탉, 암캐, 암컷, 암탉

“햅쌀”은 “조선말맞춤법” 제18항의 표기 “햇쌀”과 다르다.

“한글맞춤법”에서 雌雄은 “암, 수”를 표준으로 하여 어근 사이에서 거센소리가 나는 것은 “수캐 수강아지, 수탉, 수평아리, 수돼지 수탕나귀, 수컷, 수키와, 수톨쩌귀”의 8개로 한정하였다. 이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의 규정을 일부 바꾼 것이다. 따라서 종래 有氣音으로 표기되던 이 밖의 합성어는 “수개미, 수거미, 수계, 수고양이, 수곰, 수팽이, 수구렁이, 수굴, 수벌, 수범, 수비둘기”와 같이 ㅍ音으로 적게 된다. 이와는 달리 “숫”을 인정한 것도 있다. “숫양, 숫염소, 숫쥐”가 그것이다. “조선말맞춤법”이나 “맞춤법”에서는 거센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보아 위 보기의 경우 격음 표기를 해 차이가 난다. “숫양, 숫염소, 숫쥐”의 경우는 “ㅅ” 받침을 인정하지 않아 역시 차이가 난다.

제15항 합성어를 이룰 적에 끝소리 “ㄴ”이 빠지는 경우엔 빠지는 대로 적는다. 이는 수의적 변이를 하는 것으로, “한글맞춤법” 제28항, “맞춤법” 제16항도 같은 것이다.

“마소, 미달이, 바느질, 버드나무, 보조개, 소나무, 화살// 다달이, 따님, 마되, 무자위, 부나비, 부삽, 부손, 싸전, 여달이, 우짚다”

그런데 북쪽의 “맞춤법”에서는 이와는 달리 “파생어”를 “합친말”과 구별하여 제20항에 따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상 차이를 보인다.

제16항 받침소리 “ㄴ”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ㄴ”소리가 폐쇄음으로 된 것은 “ㄷ”으로 적는다. 이는 “한글맞춤법” 제29항, “맞춤법” 제17항과 같은 것이다.

“선달, 손가락, 나흔날, 며칠날, 이튼날// 반질고리, 사흔날, 삼진날, 잔주름, 풀소, 설부르다, 잔다듬다, 잔다랗다”

제17항 사이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한글맞춤법”에서는 “조선어맞춤법”이나, “맞춤법”과는 달리 제30항에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맞춤법과 크게 다른 점이다. 다만 “맞춤법” 제15항 [붙임]에서는 고유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새별-셋별, 비바람-빗바람”과 같은 두어 개 사이시옷을 붙인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인정한 것이다. “한글맞춤법”의 제30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나룻배, 나룻가지, 냇가, 모깃불, 선짓국, 쇠조각, 찻집, 찻대, 햇별, 햇바늘”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맷나물, 아랫니,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깃묵, 냇물, 빗물”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갯열, 뒷웃, 뒷일, 베갯잇, 옷잇, 깃잇, 나뭇잇, 댓잇”

2.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콧병, 붓득, 사자밥, 셋강, 전셋집, 찻잔, 콧병, 태줄, 텃세, 찢기, 헛수, 횃배”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갯날, 제삿날, 훗날, 뒷마루, 양칫물”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가윗일, 사삿일, 예삿일, 훗일”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뒷간(退間), 횃수(回數)”

특별히 여기서 강조할 것은 “한글맞춤법통일안” 제30항에서는 “잇과(理科), 갖법(加法), 훗수(戶數), 섯자(書字)”와 같이 한자말의 경우도 제한 없이 사이시옷을 붙였는데, “한글맞춤법”에서는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의 6개 한자어에만 붙이기로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 제5장 접두사와 어근의 적기

제18항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릴 적에는 각각 그 형태를 고정시켜 적는다. 이는 “한글맞춤법” 제27항, “맞춤법” 제18항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

“뒷저고리, 만아들, 선웃음, 싯누렁다, 셋말장다, 짓밟다, 푹곡식, 헛걸음, (헛쌀)”

보기 가운데 “헛쌀”은 “한글맞춤법” 제31항에서 “헹쌀”로 적기로 한 것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 제6장 어근과 접미사의 적기

제19항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어근과 어울릴 때 그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1) 새 단어를 만드는 접미사  
 덮개, 집계, 셋째, 앞사귀, 앞장, 찜질, 늑수그레하다, 정답다
- 2) 동사의 사역 또는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돌구다, 담기다, 웃기다, 밝히다, 읽히다, 입히다, 맺히다
- 3)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치”  
 놓치다, 덮치다, 밀치다, 받치다, 뺏치다, 엮치다
- 4)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접미사 “-히”, “-추”  
 붉히다, 밝히다, 넓히다, 굳히다, 낮추다, 늦추다

다만 들받침(겹받침) “ㄹ기, ㄹ비, ㄹ트, ㄹㅎ”으로 끝난 어근에 접미사가 어울릴 적에 그 들받침(겹받침)이 받침소리규칙(終聲規則)에 맞지 않게 발음되는 경우에는 그 받침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말끔하다, 말쑥하다, 말짱하다, (널적하다), (알적하다), 알팍하다, 실쭙하다”

이는 “한글맞춤법” 제21항과 같은 규정으로, 여기서는 “1.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된 것, 2.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말맞춤법” 제19항의 2), 3)의 규정은 “한글맞춤법” 제22항의 1, 2의 규정과 같은 것이다. 위의 “조선말맞춤법”의 예외 규정도 “한글맞춤법” 제21항의 “다만”에 보이는 아래 규정과 같은 것이다.

- (1)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할짝거리다, (널따랗다), 말끔하다, 말짱하다, 실죽하다, 알팍하다, (짤따랗다), 실컷
- (2) 어원이 분명치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 낚치, (올무), 골막하다, 납작하다

괄호 안의 낱말은 “조선말맞춤법”의 표기와 다른 것이다.

“한글맞춤법”에는 용언의 어간과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로, 어원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제22항의 [붙임]에 규정된 것으로, “-엿, -읍, -브-”가 붙어서 된 말이다. “미덥다, 우습다, 미쁘다”가 그 예다.

복쪽의 “맞춤법” 제19항의 규정은 “조선말맞춤법”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과 어울려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를 밝힌다는 것이 추가되어 있다. “조선말맞춤법”의 예외 규정은 “맞춤법” 제2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0항 어근과 접미사가 어울려 그 뜻이 달라진 경우에는 어근과 접미사를 밝혀 적지 아니한다.

“거두다(곡식을-), 드리다(선물을-), 미루다, 바치다(공량을-), 부치다(편지를-), 이루다”

이는 “한글맞춤법” 제22항의 다만 및 “맞춤법”의 제22항과 같은 것이다. “한글맞춤법”에서는 “-이-, -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위의 보기 외에 “도리다(칼로-), 고치다” 등이 있다.

제21항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어근과 어울릴 적에는 다음과 같이 갈라 적는다.

1) 어근과 접미사를 밝혀 적는 경우

- (1) 명사나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길이, 깊이, 다듬이, 손잡이, 같이, 굳이, 좋이, 정다이, 집집이, 뭇뭇이, 푼푼이”
- (2)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음”  
“걸음, 물음, 묶음, 믿음, 줄음, 얼음, 웃음”
- (3) 사역 또는 피동을 나타내거나, 형용사를 동사로 만드는 접미사 “-이, -우, -으키, -이키, -애”  
“놓이다, 높다, 먹이다, 돋우다, 일으키다, 돌이키다, 없애다”
- (4) “-거리”와 어울릴 수 있는 어근에 붙여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덜렁이다, 번쩍이다, 움직이다”

2) 어근과 접미사를 밝혀 적지 않는 경우

- (1) 어근에 “이, 음” 이외의 접미사 붙어 이루어진 명사나 부사  
“나머지, 마감, 마개, 마중, 지붕, 꼬트머리, 바깥, 너무, 도로, 바투, 비로소, 자주, 뜨덤뜨덤, 거뭇거뭇, 오긏오긏”
- (2) 의성의태어에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명사  
“개구리, 피꼬리, 귀뚜라미, 기러기, 딱따구리, (더퍼리)”
- (3) 어떤 토나 “하다”가 붙어 단어를 이루는 일이 없는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명사나 부사  
“동그라미, 갑자기, 반드시(-하여야 한다), 슬며시”
- (4) 접미사 “-얹(-영)”, “-엮(-압)”, “-읍”이 붙어 이루어진 형용사  
“가맣다, 누렇다, 발깁다, 써느렇다, 간지럽다, 미덥다, 보드럽다, 시끄럽다, 우습다”

위의 1)의 (1), (2)는 “한글맞춤법”에서 어간과 붙어서 된 말과 명사와 붙어서 된 말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다. 어간과의 결합은 제19항 1, 2, 명사와의 결합은 제20항의 1, 2에 규정되어 있다. 1)의 (4)는 “한글맞춤법” 제24항과, “맞춤법” 제23항의 (6)과 같은 것이다. 2)의 (1)도 “한글맞춤법”의 제

19항의 [붙임]과 제20항의 [붙임]에 규정되어 있다. 2)의 (2) 의성의태어 관계는 제23항의 [붙임]에 규정해 놓았다. 여기서는 어근에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원을 밝히는 기준으로 삼았다. 붙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원을 밝힌다. “조선말맞춤법”의 “더퍼리”는 한글맞춤법 제23항에서 어원을 밝히는 경우이어 “더필이”로 적게 되어 있어 차이가 난다.

북쪽의 “맞춤법” 제23항은 “조선말맞춤법” 제21항과 원칙적으로 같다. 다만 “맞춤법”에는 어근과 접미사를 밝혀 적는 경우로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가 될 수 있는 “ㅅ” 받침으로 끝난 어근과 어울려 부사를 만드는 경우(끗끗이, 깨끗이)와, 형용사를 만드는 “없”(덧없다, 부질없다)을 더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밝혀 적지 않는 경우의 용례로 어떤 토나 “하다”가 붙어서 단어를 이루는 일이 없는 어근에 접미사 “이” 이외에 “애기”, “어기(에기)”, “아기”를 추가하고 있다((호르레기), (부스레기)). 이는 “조선말맞춤법”과 다른 점이다.

제22항은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 -히”를 규정한 것이다.

1) 어간에 “하다”를 붙일 수 있는 부사

- (1) 받침 “ㅅ, ㄱ”을 제외한 기타의 받침과 모음 아래에서는 “히”  
“덤덤히, 마땅히, 부지런히, 영원히 고요히”
- (2) 받침 “ㅅ” 아래에서는 “이”  
“깨끗이, 따듯이, 뚜렷이”
- (3) 받침 “ㄱ” 아래에서는 발음에 따라 “이”, “히” (한자어는 전부 “히”, 고유어는 대부분 “이”로 적는다)  
“엄격히, 정확히, 가득히, 똑똑히, 진득이, 큼직이, 수두룩이, 납죽이”

2) 어간에 “하다”가 붙을 수 없는 부사는 “이”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뚜렷이 “히”로 발음되는 것은 “히”로 적는다.

“기어이, 번번이, 고이, 공교로이, 감히, 극히, 특히, 가히, 작히”

이는 “한글맞춤법” 제51항에서 “이”로만 나는 것, “히”로만 나는 것, “이, 히”로 나는 것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다소 모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말맞춤법”은 좀더 구체적이다. 이를 규정한 북쪽의 “맞춤법” 제24항은 두 맞춤법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제7장 한자어의 적기

제23항 한자어는 음절마다 조선어 현대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① 인민, 혁명, 여자(女子), 뇨소(尿素), 로동(勞動), 량식(糧食), 례외(例外)
- ② 일체(一切)-절실(切實), 당분(糖分)-사탕(砂糖), 성위(省委)-생략(省略), 동북(東北)-패배(敗北)

그러나 습관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것은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

“나팔(喇叭), 나사(螺絲), 노(櫓), 시월(十月), 류월(六月), 오뉴월(五六月), 유리(琉璃)”

“맞춤법” 제25항도 마찬가지다. 다만 변한 소리의 보기는 차이를 보인다. 이와는 달리 “한글맞춤법”의 한자어 표기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조선어 현대 발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으로, 語頭の “ㄴ” 소리와 口蓋音化한 “ㄴ” 소리를 “현대발음”으로 인정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글맞춤법” 제10항-12항에서는 이들을 소위 “두음 법칙(頭音法則)”이라 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를 인정하는 “조선어맞춤법”이나 “맞춤법”의 표기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한글맞춤법”은 제10항에서 어두의 “녀, 뇨, 뉴, 니”를 “여, 요, 유, 이”로 적고, 제11항에서 “랴, 려, 레, 료, 류, 리”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고, 제12항에서 “라, 래, 로, 뢰, 루, 르”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기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제10항에서 의존명사에서의 “나, 너” 음의 인정: 냥(兩), 냥중(兩 -), 년(年)

-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는 두음법칙 적용: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 \*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뒷말에 두음법칙 적용: 한국여자대학(韓國女子大學), 대한요소비료회사(大韓尿素肥料會社)
- \* 고유어의 경우에도 의존명사의 경우에는 두음법칙 적용: (고약한) 녀석, (괴씩한) 년, (실 한)님, (엽전 한) 뉘

제11항에서 의존명사 “리(里), 리(理)” 인정

- \* 모음이나 “ㄴ” 받침 뒤의 “렬, 룰”은 “열, 율”로 적음: 나열(羅列), 비열(卑劣), 분열(分裂), 선열(先烈), 규율(規律), 비율(比率), 선율(旋律), 전율(戰慄)
-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의 뒷말의 첫소리는 두음법칙 적용: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 \*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와, 數에도 두음법칙 적용: 서울여관(旅館) 신흥이발관(理髮館), 육천육백육십(六千六百六十)

제12항에서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에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 論理的)

습관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것의 표기는 “한글맞춤법” 제52항에서도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을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용례는 차이를 보인다. “한글맞춤법”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다른 맞춤법과 차이가 나는 표기이다)

“승낙(承諾)-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난(萬難)-(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寧)-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忿怒)-(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의논(議論)/ 목재(木材)-모과(木瓜)/ 팔월(八月)-초파일(初八日)”

이 밖에도 불교용어 “보리(菩提), 도량(道場), 보시(布施)” 및 “택내(宅內), 모란(牡丹), 통찰(洞察), 설탕(雪糖)”과 같은 속음도 있다.

제24항 한자 “不”의 음은 “ㄷ, ㅈ”소리 앞에서는 “부”로 적고, 그 외에는 “불”로 적는다.

“부단(不斷), 부당(不當), 부자연(不自然), 부적당(不適當), 부족(不足), 부지중(不知中)”

이는 “한글맞춤법”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제28항의 해설에서 “不”의 “ㄷ” 받침소리가 떨어져 “부”로 읽히는 단어는 떨어진 대로 적는다며 예를 들어 놓았다. “맞춤법”에도 이러한 규정은 없다.

제25항 한자어에서 모음 “꺀”는 “계, 례, 혜, 예”만을 인정키로 하였다.

“세계(世界), 계산(計算), 례절(禮節), 혜택(惠澤), 예술(藝術)”

“맞춤법” 제26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글맞춤법” 제8항에서는 이와는 달리 “계, 례, 메, 폐, 혜”의 “ㄷ”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조선말맞춤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한자음 “메, 폐”를 더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말맞춤법”에 따른 “연매(連袂)”, “개폐(開閉), 심폐(心肺), 폐기(廢棄), 화폐(貨幣)” 등은 “한글맞춤법”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제26항 한자어에서 모음 “ㄷ”이 들어 있는 음절로 “희, 의”만을 인정한다.

“희망(希望), 유희(遊戱), 회의(會議), 의의(意義), 의학(醫學)”

“맞춤법” 제27항도 마찬가지다. “한글맞춤법” 제9항에서는 “ㄷ”은 “ㅣ”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ㄷ”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한자음 “희, 의” 외에 고유어 “무늬, 하늬바람, 날리리, 띄어쓰기, 씌어, 띄어, 희다” 등의 예를 들고 있다. “한글맞춤법”도 결과적으로 한자어의 경우 “희, 의”만을 인정한 것이다.

## 2.2. “한글맞춤법”만의 규정

“조선말맞춤법”을 중심으로 세 가지 맞춤법의 같고 다름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것으로 맞춤법의 비교·대조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한글맞춤법”은 “조선말맞춤법”이나, “맞춤법”에 비해 표기법을 상세히 규정해 놓았다. “한글맞춤법”에는 “조선말맞춤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규정이 있다. 이에 여기서는 “한글맞춤법”만의 독자적 규정을 중심으로 표기법의 문제를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은 우리가 맞춤법을 살피는 목적이 한국어교육에 있어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살피는 순서는 “한글맞춤법”의 차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6항은 “ㄷ, ㅌ”이 口蓋音化하여 “ㅈ, ㅊ”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기본 형태를 밝히어 “ㄷ, ㅌ”으로 적기로 한 것이다.

“말이(마지),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활이다(활치다), 견히다(거치다), 묻히다(무치다)”

다른 맞춤법에는 이들 표기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말표준발음법” 제20항과, “문화어발음법” 제21항에 각각 구개음화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딱딱, 썩썩, 씹씹, 푹푹푹푹, 쓱쓱쓱쓱, 연연불망(戀戀不忘), 유유상종(類類相從), 누누이(屢屢-), 꾀꾀하다, 놀놀하다, 녹녹하다, 밋밋하다, 싹싹하다, 삽쌀하다, 슝슝하다, 짹짹하다”

이 규정은 “맞춤법”에도 보이지 않는다.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높임의 뜻을 더하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읽어요, 참으리-참으리요, 좋지-좋지요”

“맞춤법”에도 이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 같이 “-요”로 적는다.

제25항은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기로 한 것이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듯이 깨끗이”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곰곰이, 더욱이, 생긋이, 오뚝이, 일찍이, 해죽이”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는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와 같이 소리대로 적는다.

제25항의 1.은 북쪽의 “맞춤법” 제19항 5)의 규정과 같다.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하다”나 “-없다”를 밝혀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슬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폭하다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북쪽의 “맞춤법” 제23항 1)의 (5)는 위의 제26항 2.의 규정과 같다.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때와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때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렇지 않은-그렇잖은, 적지 않은-적잖은, 변변하지 않다-변변찮다”

이는 “~~잖-~~”, “~~찮-~~”의 표기를 피하고자 함이다.

제41항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

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제41항부터 제50항까지는 띄어쓰기의 규정이다. 중국의 “조선어맞춤법”이나 북쪽의 “맞춤법”에서는 띄어쓰기를 별도 규범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띄어쓰기가 맞춤법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한글맞춤법”뿐이다. 따라서 띄어쓰기 규정은 체재상 “한글맞춤법”만의 것으로 보고 여기서 다루기로 한다. “조선말띄어쓰기”는 총칙 및 3장 20항, “띄어쓰기”는 총칙과 5장 22항으로 자세히 규정해 놓았다. “조선말띄어쓰기”의 총칙은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 전반을 개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조선말은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사적 단어결합, 학술용어, 굳어진 말 등은 붙여 쓴다.
3. 불완전명사, 일부의 보조적 동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렇게 “조선말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에 비해 좀더 붙여 쓰는 것이 큰 특징이다.

“한글맞춤법” 외의 다른 규범에는 조사를 앞말에 붙여 쓴다고 명문화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말띄어쓰기” 제1항의 “명사에 토가 붙은 경우에는 뒤의 단어와 띄어쓴다”고 한 것이 이 규정과 연관될 뿐이다. 북쪽의 “띄어쓰기”도 “조선말띄어쓰기”와 같다.

제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다.

제44항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겸, 내지, 대, 및, 등, 등

등, 등속, 등지”들은 띄어 쓴다.

“조선말띄어쓰기” 제5항과, “띄어쓰기” 제3항에서는 의존명사(불완전명사)와 단위명사(제8항)를 붙여 쓰게 되어 있어 차이가 난다. “조선말띄어쓰기” 제7항에서 수사를 적을 때 “조선문자로 단위를 달아 주거나, 순조선문자로 적을 경우에는 만, 억, 조 등의 단위에서 띄어쓴다”고 한 것은 “한글맞춤법”의 원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쪽의 “띄어쓰기”에서는 “백, 천, 만, 억, 조” 단위로 띄어 쓴다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 제45항의 규정은 “조선말띄어쓰기” 제5항, “띄어쓰기” 제3항에서 각각 “등, 대, 겹” 따위를 띄어 쓰게 되어 있어 “한글맞춤법”의 원리와 같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그때 그곳, 좀더 큰 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이에 대한 규정은 “조선말띄어쓰기”나 “띄어쓰기”에는 다 보이지 않는다.

제47항 보조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때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띄어 쓴다.

“조선말띄어쓰기”에서는 총론에서 “일부의 보조적동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고 붙여 쓰기로 하여 “한글맞춤법”과 차이를 보인다. 제13항의 2)에서는 동사 뒤에 보조적으로 쓰이는 동사(있다, 보다, 나다, 버리다, 싶다, 말다)를 붙여 쓴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야, -어야, -어야, -게, -도록, -지, -군”형 뒤에 오는 보조적 동사는 띄어 쓰기로 하였다. 북쪽의 “띄어쓰기”에서는 제10항의 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 (2) “아, 어, 여”형의 동사나 형용사에 보조적으로 쓰이는 동사가 직접 어울린 것은 붙여쓴다.  
“돌아가다, 북아대다, 젊어지다, 쓸어버리다, 빼겨주다, 건디여내다”
- (3) “아, 어, 여”형이 아닌 다른 형 뒤에서 보조적으로 쓰인 동사나 형용사는 붙여쓴다.  
“읽고있다, 쓰고계시다, 먹고싶다, 가고말다, 써놓고보니”

제47항의 “다만”은 “띄어쓰기” 제10항에서 “듯, 만, 번, 법, 사, 척, 체...” 뒤에 토가 붙으면 “하다”를 띄어 쓴다고 하여 북쪽의 규정과 같다. “조선말띄어쓰기” 제13항에는 붙여 쓰기만 규정하고,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제50항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조선말띄어쓰기” 제2항에서는 “한글맞춤법”과는 달리 호칭어, 관직명도 “붙여쓰는 경우”로 규정해 놓았고, 총론에서 “명사적 단어결합, 학술용어, 굳어진 말 등은 붙여쓴다”고 규정하여 단어별로 띄어 쓰는 “한글맞춤법”의 규정과 차이를 보인다. “조선말띄어쓰기” 제4항에도 “학술용어는 원칙적으로 붙여쓴다”고 규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북쪽의 “띄어쓰기”에서도 제2항에서 호칭어, 관직명을 붙여 쓰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다. 고유명사의 경우 “띄어쓰기”에서는 제2항에서 개념상 “하나의 대상으로 묶

어지는 덩이”를 이루는 명칭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같은 “띄어쓰기” 제21항에서는 학술용어나 전문용어도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경향을 지니는데 대하여, 다른 두 “띄어쓰기”는 붙여 쓰는 경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제53항은 어미의 예사소리와 된소리를 구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고 규정하였다. “-(으)르까?, -(으)르꼬?”는 다른 두 맞춤법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으)르까?, -(으)르꼬?, -(스)비니까?, -(으)리까?, -(으)르쏘냐?”

이에 대해 “조선말맞춤법” 제5항과 “맞춤법” 제6항은 “토에서 ‘ㄹ’ 뒤에서 된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아니 한다”고 규정해 차이를 보인다. (-르가, -르고// -르까, -르꼬)

제54항은 된소리로 적는 접미사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개평꾼”의 “-꾼”, “맛갈”의 “-갈”, “거적때기”의 “-때기”, “팔꿈치”의 “-꿈치”, “고들빼기”의 “-빼기”, “멋쩍다”의 “-쩍”과 같은 것은 예사소리 아닌 된소리로 적는다. 다른 두 맞춤법에는 규정이 따로 없다.(다만 중국과 북쪽의 경우 “꾼”은 “군”, “맛갈”은 “맛갈”, “멋쩍다”는 “멋적다”로 표기하여 차이를 보인다.)

제55항은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을 “한글맞춤법”에서 한 가지로 적기로 한 것이다.

“맞추다·마추다> 맞추다, 뻗치다·빼치다> 뻗치다”

제56항은 “-더라, -던”과 “-든지”의 구별을 규정한 것이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제57항은 구별하여 적어야 할 여러 가지 말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語文生活에 많은 혼란을 빚기 때문에 특히 명문화해 놓은 것이다.

“가름- 갈음, 거름- 걸음, 거치다- 견히다, 견잡다- 걸잡다, 그러므로- 그럼으로(씨), 노름- 놀음(놀이), 느리다- 느리다- 느리다, 다리다- 달이다, 다치다- 달히다- 달치다, 마치다- 맞히다, 목거리- 목걸이, 바치다- 받치다- 받히다- 받치다, 반드시- 반듯이, 부딪치다- 부딪히다, 부치다- 붙이다, 시키다- 식히다, 아름- 알음- 앓, 안치다- 앓히다, 어름- 얼음, 이따가- 있다가, 저리다- 절이다, 조리다- 줄이다, 주리다- 줄이다, 하노라고- 하느라고, -느니보다(어미)- -는 이보다(의존명사), -(으)리만큼(어미)- -(으)리만큼(의존명사), -(으)러(목적)- -(으)러(의도), -(으)로서(자격)- -으로(수단), -(으)므로(어미)- (-고, -음)으로(씨)(조사)”

제55, 56, 57항은 “맞춤법”에도 따로 규정이 없는 것이며, 제55항은 “한글맞춤법”에서 종전의 용법을 개정한 것이나, 실제 표기는 오히려 다른 두 맞춤법과 동일하다.

### 3. 맞춤법과 한국어교육의 방향

언어생활은 대부분 음성언어에 의해 이루어지나, 문자언어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진다. 문자언어의 생활이란 곧 읽기·쓰기의 생활이다. 맞춤법은 이 가운데 특히 쓰기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문자에 의한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 맞춤법을 익히고, 이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강제된다.

“맞춤법”은 이러한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위해 사회적인 규범으로 규정해 놓은 실용적 규범이다. 한국어의 경우 표기법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각기 그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중국에서 쓰이는 넓은 의미의 한국어가 같은 언어이고 보면 이렇게 다른 규범에 의해 언어생활을 수행하게 할 일이 아니다. 통일된 규범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언어생활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는가 하면 민족적 정체성도 지니게 한다. 따라서 이는 하루 속히 통일돼야 한다. 다행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나라의 맞춤법은 그리 심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박갑수, 1994).

- ① 사이시옷의 표기 여부
- ② 어간 모음 “ㅣ, ㅐ, ㅑ, ㅕ, ㅖ, ㅗ”의 “-어/-었”과 “-여/-였”의 표기
- ③ 한자의 어두음 “ㄹ”과 구개음화된 “ㄴ”의 표기
- ④ “이”와의 합성어에서 변이음 “니”의 표기
- ⑤ 띄어쓰기

이러한 차이는 남북 공통의 표기법이었던 “한글맞춤법통일안” 시대로 회귀해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①②③의 문제가 해결되고, ⑤도 많은 것을 붙여 씀으로 조절된다. ④는 형태주의 표기 원칙에 의해 변이음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바람직하다.

언어생활의 통일을 꾀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곧 민족어 교육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기서는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방안을 맞춤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모색해 보기로 한다.



### 첫째, 한국어 교육의 강화

중국의 언어 규범은 대체로 북쪽의 언어 규범을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남쪽의 언어 규범에 의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남북의 언어생활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조선족이 급감하고 있고, 集居地域이 줄어들다가 하면, 조선족 학교가 날로 감소·위축되고 있어 조선족 사회의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거기다가 한국인의 진출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 散居地域의 주민이 많게 되고, 한국인과 많은 접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중국의 조선족은 한국의 언어 규범에 따른 한국어 교육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거기에다 이미 조선족의 구어는 많은 부분 “조선어” 아닌 “한국어”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맞춤법”을 익혀 문자언어도 “한국어”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근자에는 韓流의 바람이 불어 한국어의 학습 열기가 뜨겁다. 이런 때 漢族 아닌 우리 동포라면 한국어 학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 학교의 교육은 앞으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둘째, 體系 속의 교육

한국어교육은 교수·학습 목표를 정하고, 체계 속에 교수·학습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어떤 맞춤법의 체계를 가르칠 것인가부터 정해야 한다. 중국의 東北 三省의 경우는 “조선말맞춤법”을 기본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지역은 남북의 어느 표기법을 교수·학습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동북 삼성의 경우에도 한반도에 진출할 학습자를 위해서는 남북의 맞춤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도해야 한다. 이럴 경우 낱말 하나하나의 개별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맞춤법의 체계 속에서 개별어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을 바꾸면 구성 요소를 구조 속에서 파악하듯, 맞춤법의 틀 속에서 개별적 표기법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맞춤법의 원리를 인식함으로 개별어만이 아니라, 체계와 구조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어느 하나의 규범을 익힌 경우에는 비교 설명할 수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비교를 통한 차이점에 더욱 비중을 두고 교육할 수 있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익힌 경우도 마찬가지다.

### 셋째, 통합적 기능교육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 교육은 단일 기능 교육으로 수행하기는 곤란하다. 통합적 기능 교육으로 피해야 한다. 그래서 실러버스도 통합적 기능교육을 하도록 작성하는가 하면, 교재도 그렇게 편찬된다. 표기법의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표기법이라는 쓰기 교육은 쓰기 단독으로 운영되기에는 적당치 않다. 그렇게 되면 학습자가 흥미를 잃게 될 뿐 아니라, 학습 효과도 제대로 거둘 수 없다. 말하기와 쓰기, 듣기와 쓰기, 읽기와 쓰기같이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찰 및 조사 기록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은 짓기와 연계하는 것이다.

### 넷째, 구조적 실러버스에 의한 교육

언어의 구조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표기법 교육을 한다. 음운, 어휘, 문법 등 언어의 구조적 면과 관련지어 맞춤법 교육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맞춤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발음과 표기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괴리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정서법 교육을 음운면과 연계지어야 하는 큰 이유다. 발음과 표기의 차이를 빚게 하는 것은 誤用과 音韻變異現象 때문이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음법칙, 절음법칙, 경음화현상, 모음동화, 자음동화(비음화, 설측음화, 연구개음화, 양순음화), 전설모음화, 원순모음화, 구개음화, 음운첨가 따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변이현상을 알지 않고는 올바른 표기를 할 수 없다. 발음되는 대로 표기를 함으로 잘못을 빚기 십상이다. 이런 오용과 변이현상의 예를 몇 가지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연음법칙: 닭이>다기, 들녘에서>들녀게서, 무릎에>무르베, 밭을>바츨, 젓을>저슬
- 경음화현상: 감다>깜다, 닭다>딱다, 등기>등끼, 부러지다>뿌러지다, 창고>창꼬
- 모음동화현상: 가자미>가재미, 먹이다>메기다, 벗기다>베기다, 손잡이>손재미
- 설측음화: 건립>걸립, 난리>날리, 신라>실라, 전량>절량, 칼날>칼랄, 한랭>할랭
- 연구개음화: 갑갑하다>가갑하다, 둔갑>등갑, 꼼꼼히>풍꼬미, 짓가슴>적까슴, 한국>향국
- 양순음화: 꽃밭>뽕밭, 단백질>담백질, 살바>삽빠, 신문>심문, 짓먹이>점머기, 찬물>참물
- 구개음화: 가을견이>가을겨지, 같이>가치, 받히다>바치다, 해돋이>해도지, 훑이>훑치

어휘의 면에서는 표준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글맞춤법”에서 기본원칙을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말해 주는 것이다. 아무리 표기법에 통달하고 있다 하더라도 표준어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바른 말을 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날, 낮, 낮, 낮, 날”이란 단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바른 표기를 할 수 없다. “옷, 념, 물, 짚, 낱이, 샓, 굶, 쏘다”의 받침을 제대로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것도 표준어와 관련된 문제이고, “바치다, 받치다, 받히다, 받치다”를 구별 표기하는 것도 표준어의 문제와 관련된다. 낱말의 어원이나, 합성 및 파생과 같은 造語法도 표기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맞춤법에 맞게 제대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낱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표준어 학습과 맞춤법의 지도는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문법면도 마찬가지다. 우선 낱말과 낱말이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음운변이나, 피동과 사동 접사가 연결되면서 생겨나는 음운변이 등이 문법적 지식 없이 바른 표기를 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용언의 활용 또한 주의하여야 할 학습 대상이다. 더구나 올바른 표현, 원만한 언어생활을 전제로 할 때 문법과 표기는 뭘래야 뭘 수 없는 관계를 지닌다. 따라서 문법 교육을 하는 가운데도 표기법의 지도를 아울러 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맞춤법의 지도는 이렇게 書寫言語의 지엽적인 일부분으로서 지도할 것이 아니라, 언어 구조의 전반에 걸친 지도와 상호관련 속에 꾀해져야 한다.

#### 다섯째, 키친 랭귀지의 지양

언어교육은 習得이나 學習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학습보다는 습득에 의해 체득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생소한 외국어의 경우는 학습에 의해 많이 익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외동포의 경우는 현지어가 아닌 모어의 경우 습득의 과정을 많이 겪게 된다. 우리 동

포의 경우 미국이나 중국에 거주하는 2세, 3세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어깨너머로 듣고 한국어를 배운다. 따라서 들은 풍월로 배워 말을 하는 것이라, 그것은 바르고 정확한 것이 못 된다. 이러한 말을 흔히 키친 랭귀지(kitchen language)라 한다. 이러한 키친 랭귀지는 학습을 통해 바로잡게 된다. 그리고 문자언어를 학습하며 정확해진다.

모국어를 익힌 자국인의 맞춤법 교육과 한국어를 제대로 모르는 외국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재외동포의 맞춤법 교육은 차원이 다르다. 중국의 각급 학교에서 학습하는 우리 동포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이런 키친 랭귀지의 소유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바른 음성언어를 가르쳐 주고, 나아가 문자언어를 가르쳐 줌으로 올바른 한국어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에 맞춤법 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불분명한 음성언어에 분명한 형태를 제공하며, 어법에 맞는 언어생활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키친 랭귀지의 단계를 빨리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맞춤법의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 여섯째, 구체적 맞춤법 지도

구체적으로 철자법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앞의 논의에서 다소 소 윤곽이 드러난 바 있다. 그것은 표준어 교육을 강화하고, 작문교육을 통해 맞춤법 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는 강의를 하거나, 써 오게 하는 과제를 주기보다 발견·탐구학습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자법의 체계 속에서 개별어의 표기법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사회 현장이란 실제 장면을 활용하면 훨씬 흥미로운 교수·학습이 될 것이

다. 또한 교수·학습은 통합적 교수·학습을 하도록 할 일이다. 교재의 맞춤법과 다른 “맞춤법”을 비교 대조하여 그 차이점을 찾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맞춤법의 교수·학습은 자칫하면 떠분하고 지루한 시간이 되기 쉬우므로, 무엇보다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제어] 한국어교육, 조선말맞춤법, 한글맞춤법, 맞춤법

## 참고문헌

- 박갑수(1999),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집문당  
박갑수(2005),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성찰』,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글학회(1958), 『한글맞춤법 통일안(원본 및 고친 판 모음)』, 한글학회  
岩淵悦太郎 外(1977), 『表記・文法指導事典』, 第一法規

---

\* 본 논문은 2005. 12. 2 투고되었으며, 2005. 12. 6 심사가 시작되어, 2005. 12.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 Abstract

A Language Standard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in China

Park, Kap S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rules of spelling for successiv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China. Diversity of language rules makes some problems.

In this study, I compared 'Joseon language orthographical rules' used in China with 'Korean language orthographical rules' used in South Korea. First, I compared these two orthographical rules focusing on the sameness and difference. Second, I considered the rules in 'Korean language orthographical rules' which 'Joseon language orthographical rules' doesn't include. As occasion demands, I considered 'Orthographical rules' used in North Korea. After these consideration, I tried to find a way for desirable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result, orthographical rules in these three countries are proved to be similar. However, they show some differences such as spacing words. The problem of these differences can be solved by coming back to the age of 'a draft for unified Korean orthography system'.

The ways of teaching Korean language in China to unify use of language are as follows. First, developing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necessary. 'Korean language' should be a material of education instead of 'Joseon language'. Second, systematic instruction is necessary. Third,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should be taught together. Fourth, orthographical rules should be taught related to construction of language. Fifth, 'kitchen language' should be sublated. Foreigners who don't know Korean language well can't teach it well. Sixth, orthographical rules should be taught related to orthographical system. And teachers should let the students find orthographical rules and investigate it using various teaching methods.

[Key Word]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Joseon language orthographical rules(China)', 'Korean language orthographical rules (South Korea)', 'Orthographical rules(North Korea)'